

민주당, 오늘 화개장터서 영·호남 합동유세 “통합시대 열자”

전남·경남도당 관계자·김경수·김두관·김상욱 의원 등 이재명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공동 유세를 펼친다.

화개장터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15일 청년 참석자들과 ‘동서 화합’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의미를 부여한 장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대위와 전남도당 선거대위가 함께 추진하는 화개장터 유세에는 김경수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두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까지 가세한다.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경남도당과 함께 20일 오후 3시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하나,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영·호남 합동유세에는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주축으로 전남에서는 권향엽, 김문수 국회의원 경남에서는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이 참가한다.

화개장터 유세가 분열의 시대를 넘어 이재명 후보로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중앙선대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한다.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던 김경수 상임선대위원장

과 경남 양산을 지역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김두관 전 국회의원, 이언주(용인시 정) 상임선대위원장이 합류한다.

특히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한 김상욱 국회의원도 가세한다.

이날 유세는 호남과 영남을 상징하는 노래인 남행열차와 부산갈매기에 맞춰 율동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태극기 조파 퍼포먼스, 포토타임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욱 의원은 잔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며 송순호, 주철현, 민홍철, 김정호, 이언주, 권향엽, 김문수, 김경수, 김두관, 류경완 등 참석자 모두가 이재명 후보 지지발언을 쏟아낼 계획이다.

또 영호남 각 지역을 대표해 김묘정 창원시의원과 최대원 광양시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영호남 공동 결의문을 낭독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양 지역 선대위가 함께 이재명을 중심으로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추경으로 내수살리기... AI 성장기회” 김문수 “기업 규제 완화 좋은 일자리 만들 것”

제21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8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날선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중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제·외교 등 분야에 대한 주제로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면서 단기 대책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전히 같이되어야 한다”면서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면서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

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났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적했다.

권영국 후보는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협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도 미리 (협상)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 상당 정도 타협했다”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이 후보는 과거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미국의 신뢰를 잃었고, 권영국 후보는 반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사진 속 동석인 직무 관련자 의심
지 판사 “의혹 제기 내용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내부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

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룩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바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내부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제공되는 음료 종류까지 같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해당 업소의 내부 홀로 추정되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에 찍힌 두 명의 동석자에 대해서는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

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통화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최선임 참모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수화가 너머에서) ‘빨리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그가 통화상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 복창하는 것은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꼬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